

어린이 책꽂이

▲그림 메르헨=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친숙한 그림형제의 이야기 101편이 수록된 선집이다. '백설공주', '헨델과 그레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다양한 동화들이 실려 있다. <문학과 지성사·3만5천원>

▲소금 세계사를 바꾸다=세계사를 바꾼 소금의 모든 것을 담은 그림책이다. 인간이 소금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여로가 인류의 역사와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웅진주니어·1만원>

▲미술이 궁금할때 피카소에게 물어봐=선사시대의 동굴벽화로 부터 20세기 팝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까지 20세기 최고의 미술가로 평가받는 피카소가 알기쉽게 설명한다. 미술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여러가지 이론적인 내용들도 소개돼 있다. <아이세움·8천원>

▲튼튼탄탄 내용관리=자신의 몸 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주니어 김영사·5천900원>

▲음악의 모든 것=음악의 개념과 악기, 음악의 역사를 짧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악보를 읽는 법, 관현악단의 구성, 관현악단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미래 M&B·1만원>

행복, 시대따라 이렇게 다를수가

행복의 역사 미셸 포셰 지음

'행복하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감정이다. 간절히 원하던 소망을 이뤘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 잠에서 깨 문득 시계를 보고 한숨 더 잘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사람에게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 행복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수고를 들였다. '행복론'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러셀, 파스칼 등 철학자들이 어렵없이 다룬 주제였다.

프랑스 리옹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미셸 포셰가 쓴 '행복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행복'이 어떻게 해석돼 왔으며, 어떤 변천과정을 거쳤는지를 체계적으로 조망한 책이다.

행복의 기원은 에덴동산이다. 그러나 낙원에서 행복을 즐기던 인간이 추방당하면서 행복은 변형되기 시작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함께 살아갈 방편으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같은 정치적 공동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인간이 행복 자체를 하늘에 맡겼던 중세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구원과 믿음을 보다는 주술과 제의로 진행되는 축제를 통해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고, 삶의 활로를 찾았다. 중세를 벗어나면서 행복은 일적인 변화를 겪는다. 16세기 인본주의자들이 꿈꾼 행복은 자유를 흠뻑 취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자, 신을 차츰 버리면서 얻게 되는 행복이었다. 즉, 행복의 근원이 신에서 인간으로, 이성에서 감성을 거쳐 감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낭만



주요 시대의 신을 버리는 대신 예술을 통해 구원을 찾던 시대로 평가된다. 18세기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수많은 작가들과 여행가들에게 행복을 상징하는 도시였다. 베네치아의 호색한 카사노바는 회색록에서 '행복이 존재하는 곳은 지상이다'며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자신의 행복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은 행복을 정치적 원칙으로

행복의 변천 과정과 주요 쟁점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로 분석

삼아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노력이었다. 앙시앵레짐(구체제)을 무너뜨리고 진보를 이루려는 시도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논리로 힘을 얻었다.

현대사회는 인간이 기술을 지배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까지도 지배하는 '독립된 개인'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관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모든 것들이 상품화되고 파편화한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공간과 자기만의 독서, 자기만의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셸 포셰는 이를 위해서 '관계' 맺음을 주목한다. 내가 맺는 관계, 나의 일상 속에서 끊임 없이 펼쳐지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달리' 맺어야 행복을



행복이라는 개념은 고대와 중세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인식돼 왔다. 사진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포스터.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권이 나뉘는 타인의 인격과 입장을 고려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고유한 논리와 관점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터·1만3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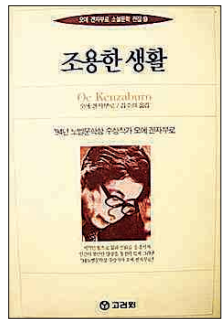
오에 겐자부로 '조용한 생활'

장애아를 기르는데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선천적인 지능 장애아일 경우, 그 아이의 탄생을 바라본 부모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심중팔구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죄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심각한 고뇌에 빠지게 될 터.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어쩌면 혼의 일이고, 운명에 관한 일이라 여겨져서,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종내에는 어떤 위기로 변모하게 될 터.

이 소설 '조용한 생활'(고려원)이 정면으로 다루고 있고,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런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설 속에는 스투네 살 꽃다운 청춘으로 성장한 히카리 군(선천적 지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과, 그의 소설가 아버지 K씨가 등장한다. 히카리 군의 별명은 이요. 그는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복지작업소에 출근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작곡 과외를 받고 있다. 저명한 소설가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네 살 어린 여동생과 재수생 남동생이 있다. 피곤하면 가끔 간질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전히 지능에 장애가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다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소설 속 가족들은 반대로 이요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더불어 위로를 받는다. '태어난 것이 비참할 뿐인' 인간들에게, 사고하고 고뇌하는 인간들이 도움을 받고 위

우리들도 장애아에 도움받는다



로를 받는다는 설정. 그런 관계의 역전 현상이, 이 소설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태연하게 등장한다. 우리가 놀이러지러하고, 대강 규정지어버리는 장애아의 세계, 소설 속에선 생기가 있고, 정감 넘치게,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 구체적인 세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어쩌면 우리 너무나도 체계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조직화되어 있으며, 추상화되고 희박한 존재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요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생경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너무 통일된 플랫폼과 논리 속에 익숙해져 있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소설이 주는 감동은, 자칫 선부른 동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동받은 장면을, 반대로 오직 이요의 입장에서, 오로지 그의 관점에서만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그것이 과연 감동이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일까? 그것 역시 어쩌면 우리들의 일방적 시선일지도 모른다. 서투른 의미와 같은 것들 말이다. 이요에게 그것이 단지 생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 모를 일이나.

소설에 나오는 소설가인 아버지가 겪는 위기는 바로 그런 서투른 의미화로 인해 기인한 것일 터이다. 자신의 소설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요, 그래서 그를 논리적 시선으로 포착하려 했던 아버지. 소설은 그런 아버지의 시선과, 과거에 대한 반성적 시각 때문에 더더욱 마음 아프고 눈물겨워진다(실제로 이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장애아 아들을 키우고 있다). 너무 늦은 인식이었으나, 또 한편 생각해보니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인식이었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서정이 발생하는 지점, 동정이 아닌, 감응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기호 <소설가>



17C 조선서 살았던 네덜란드인 이야기

천년의 왕국 김경욱 지음

광주 출신 신세대 소설가 김경욱씨가 '황금 사과' 이후 5년 만에 네 번째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천년의 왕국'은 김탁환의 '리심', 김훈의 '남한산성', 신경숙의 '리진' 등 최근 문학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역사소설의 범주 안에 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봄까지 기간 '문학과 사회'에 연재한 것을 묶었다.

17세기 조선에 살았던 네덜란드인들의 이야기다. 하멜표류기에 등장하는 파란 눈을 가진 조선 국왕의 사자 '박연'이 바로 하멜보다 26년 일찍 조선에 표착했던 네덜란드인 'J. J. 벨데브레'다.

조선의 서양인으로 이웃사이더일 수 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내면을 1인칭 시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선 그들의 내면을 상상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중 최초 한족 황제 유방의 리더십

유방 사타케 야스히코

일본 도쿄도립대 명예교수인 사타케 야스히코가 중국 최초의 한족(漢族) 황제 유방(劉邦)을 재조명했다. '유방'은 유방의 생애, 구체적으로 탄생과 성장기를 거쳐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설하기까지의 과정이 역사의 전체상과 맞물려 치밀하게 묘사한 역사서.

초한전쟁(楚漢戰爭)의 승리를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소설이나 극화된 형식의 이야기에서 풀곤 라이벌 항우(項羽)보다 처지는 인물로 다뤄져 왔다. 일본인 유명 작가 시바 료타로가 쓴 '항우와 유방'에서도 항우는 기계와 힘을 갖춘 대장부의 전형으로, 유방은 대업을 위해 비굴함도 마다하지 않았던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항우가 귀족이었던 반면, 유방은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힘과 무술, 신분, 문화적 재능 등 모든 면에서 처지는 유방이 한나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더십'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산·2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오페라 침실세트 30% 할인, 마가엘 커실장침실세트, HS-6720 비토, JSD-비토, 미가엘 5단서랍장, 아사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전남·북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시외·시내 출장전문, 체육대회·아유회, 식탁·의자 무료지원, 연회장 주차장 완비.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